

# 이 력 서



이름	김 소 리	영문	kim so ri
생년월일	1993년 02월 05일	성별	여
휴대폰	010-4508-8351	E - mail	bwb_05 @naver.com
포트폴리오	<a href="http://sorikim.dothome.co.kr/">http://sorikim.dothome.co.kr/</a>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광남로 186-4 광안오션뷰		

## 학력사항 (최종학력: 신라대학교(4년) 졸업)

재학기간	학교명 및 전공	전공	구분
2021.10 ~ 2022.03	부산직업전문학교	반응형(웹퍼블리싱)&웹디자인	수료
2020.09 ~ 2020.11	더조은컴퓨터아트학원	영상편집&모션그래픽제작(프리미어,에펙)	수료
2011.03 ~ 2015.02	신라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졸업
2008.03 ~ 2011.02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	졸업

## 수상내역

기간	상세 내용	기관
2013	UCC 콘텐츠 공모전 가작	백두강원 공의꿈 통두부

## 자격증

취득일	자격증/ 면허증	등급	발행처
2016.07	컴퓨터활용능력	2급	대한상공회의소
2015.07	자동차운전면허	2종 자동	부산지방경찰청
2012.11	GTQ	2급	한국생산성본부(KPC)

## 경력사항

근무기간	회사명	담당업무
2021.04 ~ 2021.06	연제구 보건소	민원실 사무보조
2017.12 ~ 2020.06	푸드팡 주식회사	경영지원 및 간단한 세무회계, 디자인 외 사무전반
2016.09 ~ 2017.07	프라임 약국	조제/전산/입출고관리/매장정리
2015.09 ~ 2016.03	센텀푸르지오아파트	신규가입, 탈퇴, 연장, 출입관리
2014.12 ~ 2015.03	키스템프	후원권유, 후원서작성

## 보유기술

Adobe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XD, 라이트룸, 프리미어 프로, 에프터이펙트, 인디자인		
Office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그 외	한컴오피스 한글, 비주얼스튜디오 코드

# 자기소개서

## 성장과정

### '늘 성실하게 임하는 아이'

학창 시절부터 그룹 내에서 묵묵히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완수하는 포지션을 맡아왔습니다. 그런 모습 때문인지 담임선생님들께서 생활기록부에 공통적으로 늘 성실하게 임하는 아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2학기 반장을 새로 뽑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반에 아무도 반장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서 선생님께서 저를 지목해 반장을 하라고 하셨던 적이 있을 정도로 무탈하며 신뢰감 있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으레 하는 휴학 한번 하지 않고 친구들과 공모전을 참가해가며 성실하게 임했고,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보기에는 재미없고 평이한 생활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며 겸손하고 성실히 주어진 일을 매듭지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책임감을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 성격과 강점

###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라.'

늘 맡은 바에 책임감 있고 성실히 임하는 성격입니다.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보고야 마는 근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처음 계획한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지나간 일에만 연연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해 있는 성격 또한 아닙니다. 시간을 들여 길게 후회하기보다는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고,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약국에서 조제보조로 일했을 때 대기 환자가 한 번에 확 물리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대기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긴장되고, 빨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져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수를 단순히 넘기지 않고, 퇴근 후 집에 돌아가서도 어떻게 해야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고민한 끝에 일의 우선순위를 다르게 정리해 봄으로써 업무를 적은 동선으로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하며, 이를 통해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된다고 믿습니다. 실수를 헛되이 흘리지 않으면 결국 실보다 득이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디자이너로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단순히 실수로만 끝내는 것이 아닌, 그 실수를 딛고 하루하루 더 성장해 내겠습니다.

지금에 충실히 마음을 다하면 결과는 따라오는 일입니다. 말주변이 부족하고 다소 진지한 성격이지만 그만큼 사람들에게 성실히 반응하고, '언행일치'가 되는 진중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역량·경험 소개

### '시각적인 힘'

광고를 전공하고 직업으로 삼지 않았지만 지금도 전공을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광고를 보며 제작자의 의도, 노출 전략 등을 떠올리는 게 흥미롭습니다. 기획서를 작성하고 보고하는 일에 있어서 편집과 보정하는 일에 좀 더 집중하는 광고학도였습니다. 공모전이나 과제를 할 때 팀을 이루어 역할 분배를 하면 주로 정리하고 편집하는 일을 맡았는데, 누구보다 잘 해내기 때문에 자신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좋은 아이디어라도 타인에게 효과적으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시각적인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영상편집과 웹디자인 과정을 수료해 프리미어, 포토샵 등 Adobe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상과 웹사이트로 표현하는 방법을 습득했습니다.

자신의 역량에 멈춰서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발을 멈추지 않는 자세가 성장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을 멈추지 않는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소통하는 자세’**

개인적인 취미로 사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직접 카메라를 메고 무언가 찍는 일도 있지만 보통은 모델 역을 합니다. 모델이라곤 하지만 사진을 찍는 것 빼고는 다 합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분들과 알음알음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컨셉을 정하고, 소품과 의상을 모으고, 장소와 일정을 정해 촬영에 들어갑니다. 이때마다 뭔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진을 전송받아 순차적으로 보정을 하고 결과물을 나눕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매 순간 한 명 한 명의 책임감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또 이 취미를 가지게 되면서 수줍은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새로 알게 되는 것에 대해 조금은 쉽게 느끼게 되었고, 사람 간의 예의와 매너에 대해 더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다는 것과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니다.

항상 겸손히 배우는 자세로 책임감 있게 임하며 원활한 피드백을 주고받는 디자이너가 되겠습니다.

---